

2009 희망을 잡아라

<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주식·펀드 투자 전망

경기불안 … 원금보전형 비중 늘려야

-투자의 원칙이라 말할 수 있는 올해 재테크의 키워드가 있다면.

▲손우철=목표부터 세울 것을 권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목표없이 유행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의 중국펀드 투자다. 중국 펀드 열풍을 타고 4분기에도 그에 전체 투자액의 80%가 몰렸는데 결국 중국시장이 무너지자 큰 손실을 떠안고 말았다. 1~2년의 단기투자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는 보수적인 투자전략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격적인 투자전략이 적합하다.

▲김정관=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수출부진·고용악화·소비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살아남기 위한 원금보전형 상품의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주식·채권·저축 등 금융분야에 투자한다면 어느 쪽이 수익률면에서 유망할 것으로 보는가. 만약 1억원을 금융분야에 투자할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승환=올 한해 수익창출보다는 2010년과 2011년을 바라보는 투자가 바람직해 보인다.

■ 투자 포트폴리오…

주식 40·채권 30·저축 30%

다. 1억이 있다면 주식에 4천만원, 채권에 3천만원, 저축에 3천만원을 투자하겠다.

▲황성웅=저축을 권하고 싶다. 저금리시대라고 하지만 연 6~7% 수익률을 험길수 있다. 지난해 주가는 전년대비 40% 이상 하락해 당장은 주식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3~6개월의 단기 금융상품을 권하고 싶다. 저축에 50%, 채권에 30%, 주식에 20%의 포트폴리오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손우철=1억원이 1~2년내에 사용해야 하는 돈이라면 정기적금과 체권 위주의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고, 3년이상 투자하는 자녀 교육자금이나 은퇴자금이라면 기간에 따라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다. 3년정도 투자한다면 CMA에 1천만원, 정기예금 3천만원, 국내 채권형펀드(회사채) 2천만원, 국내 주식형펀드 성장형과 가치형에 1천만원씩, 해외 주식형 펀드(미국 금융주) 1천만원, 해외 주식형펀드(아시아) 1천만원을 권하고 싶다.

▲김정관=확정금리 및 대기성상품에 6천만원을 넣고 국내 주식형펀드에 1천500만원, 해외 주식형펀드(미국 금융주)에 1천만원, 국내 채권형펀드(우량 회사채)에 1천500만원을

새해가 밝았지만 금융과 부동산 등의 투자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환율과 금리, 유가, 내수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악의 불황속에서도 회망, 즉 돈버는 방법은 있다고 얘기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올해 성공투자 전략을 금융과 부동산 부문으로 나눠 2회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註>



손우철
<TNV 아드베이저 AD센터장>



황성웅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시무소장>



김정관
<광주은행 상무PB센터장>



위승환
<HMC 투자증권 광주지점장>

IT·조선·자동차 업종대 표주 노려볼만

저금리시대 … 국공채 등 채권 대체 수단

분산하겠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유망업종과 종목을 추천한다면.

▲위승환=2분까지 지속될 기업이 악화와 구조조정 등의 불씨가 여전해 상반기중 추가 가능성성이 있다. 그러나 하반기 SOC 투자 확대와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므로 상반기중 지수가 크게 떨어진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투자기회라고 판단한다. 상반기에는 경기침체에 저항력이 강한 통신서비스·제약·음

식료업종이 하반기에는 소비회복세로 IT·화학·조선·철강업종이 주목된다.

▲손우철=한국은행을 안정여부·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 시기·가계부채의 신용버블이 현실화 될 것인지·FTSE 선진국지수 편입 효과 등이 올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만약 현재 제기되고 있는 2000년대 초반 카드버블 사태가 재연된다면 단기적으로 지수의 낙폭이 커질수 있지만 환율 안정과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돼 수급사정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성웅=상반기에는 업종에 초점을 맞추는 섹터전략보다는 시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고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민감주에 관심을 둘만 하다. 그렇지만 환율을 감안할 때 IT·자동차업종보다는 원자재·산업재 관련 주가가 낮다고 생각한다.

-간접투자 방식이 주식형펀드에 여전히 유효한 투자방식이라 생각한다.

▲손우철=주식형펀드의 특성상 단기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생각은 위험하다. 3년이상 투자해 금리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승환=꾸준히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적립식 펀드 투자 방식은 손실은 적게, 수익은 빨리 올리는 지름길이다. 자신의 50%를 넘지 않고 월 저축액의 50%를 넘지않는 투자가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저금리시대에 채권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권유할 만한 채권 투자 팁(Tip)이 있다면.

▲황성웅=기간(단기물이나 장기물이나)과 투자대상(국공채나 회사채나)을 꼼꼼히 따져 전략을 세워야 한다. 1년이내 단기전략

■ 주식형펀드 여전히 유효?

3년 이상 적립식 바람직

이라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국공채 펀드를, 1년이상 장기투자라면 채권과 펀드 만기와 같은 기간에 맞게 하는 고금리 회사채 펀드를 고려할만 하다.

▲손우철=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는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므로 유망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올해는 국공채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를 모색하고 중산층이 하라면 채권투자보다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금상품을 권하고 싶다.

-올해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고 주식시장 퇴출요건이 강화되는 등 금융분야에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이런 제도개선이 일반 투자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정관=더욱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하지만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내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려면 그만큼 판별력을 높일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해야한다.

▲위승환=금융상품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투자 가능 상품범위에 제한을 받게된다. 불완전 판매가 협탁히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리=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동양저축은행 모범 납세기업 선정

동양상호저축은행이 광주시로부터 지방세 모범 납세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동양상호저축은행 이강(사진 원쪽) 행장은 지난달 31일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도 모범 납세기업 시상식에서 박광래 광주시 장·군·군수의 모범 납세기업 표창을 수여 받았다. 시상은 유래명 광주시 동구청장이 대행했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7월 제정된 ‘광주시 모범 납세자 우대조례’에 따라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동양상호저축은행을 모범 납세기업으로 광주시에 추천했었다.

동양상호저축은행은 최근 3년간

재산세, 사업소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 81건에 7억2천여만원을 체납없이 납부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과세기관의 재원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범 납세자에 선정된 법인은 모범 납세자 증명서 발급과 함께 정기적인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해당 차량 1대에 한해 광주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대주그룹 계열사인 동양상호저축은행은 지난 1983년 5월 동구 금남로 3가에 문을 열었으며, 입주 21년 명에 자본금 27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년 지역 물가 상승률 10년만에 최고

광주·전남 각각 4.8% 올라

상승했고, 축산물(12.6%), 공업제품(8.0%), 개인서비스(4.8%) 등의 물가상승폭이 커졌다.

전남도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4.8%나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4.7%)을 웃도는 현준, 1998년(8.3%) 이후 최고 수준이다.

1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 1년간 광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에 달했다. 이는 외환 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8.1%)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19.7%

상 319개 제조업 및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를 통해 올해 업황을 전망한 결과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경우 업황 BSI가 55도 지난해 66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1차금속,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특히 불황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

“올해도 어렵다”

광주·전남 기업에 드리워진 멍구름이 올해에도 좀처럼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연매출 20억원 이

전망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남성 헤어 기능장 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최신제품 SBS·KBC 『사람세상 방영』



초슬립!!

스킬과 망이 초극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여성모두(无毛)한통화로OK!

*화상 두피탈출증 기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제품도 신기술로 보완 시술 가능

매주 희요일, 흥무(일요일) 정상영업)

무료전화 080-323-5858

E-mail: daesanggab.co.kr



• 1997년 CAT 블란서 세계선수권대회 대상수상에 빛나는 전국 최고의 실력자 이세원원장이 직접 시술합니다

• 1:1 원장직접 개별상담실 운영

• 타사제품과 비교할수 없는 전국 최저가 시술

• 몰박스타일, 취침, 수영, 사우나, 축구, 헬스, 테니스 어떤 운동에도 정기화될수 있습니다

• 타사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은 상담해 드립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 수 채 011-607-5330

